

# 로마, 비전을 세우다 - 제4편

오래된 논쟁의 재점화: 재림교회에서 예언 해석을 둘러싼 격돌

Jeff Pippenger

2024-08-08

우리는 "오래된 논쟁들"이 마지막 때에 되살아날 것이라고 미리 경고를 받아 왔다.

역사와 예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오류 사이의 오래 지속된 투쟁을 묘사한다. 그 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오래된 논쟁들은 되살아날 것이며, 새로운 이론들은 끊임없이 대두될 것이다. 선택된 기별, 제2권, 109쪽.

예외 없이 그 오래된 논쟁들은 현대 로마의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사탄적 시도였다. 이는 그 환상을 확증하는 이가 마지막 때의 교황 로마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의 몇 가지 사례가 재림주의의 역사 속에 있다. 첫 번째는 1843년 개척자 도표에 나타난 개신교도들과 밀러파 사이의 논쟁이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신성한 1843년 개척자 도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적 진리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아니었던 유일한 언급은 그 시대의 개신교도들과 밀러파의 논쟁을 나타낸 것이었다. 개신교도들은 다니엘서 11장 14절의 "네 백성의 강도들"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보았으나, 밀러파는 그것이 로마임을 알고 있었다.

"164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사망. 물론 그는 통치자들 중의 통치자에게 맞서 일어서지 않았는데, 통치자들 중의 통치자가 태어나기 164년 전에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1843년 개척자 도표.

그 후 다니엘서 11장의 "북방 왕"을 누구로 정확히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제임스 화이트와 유라이어 스미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제임스는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구절들의 "북방 왕"을 교황 로마, 곧 내가 부르는 바 현대 로마로 규정한 것이 옳았다. 스미스는 다니엘서 11장 36절의 "북방 왕"은 무신론적 프랑스로 주장했다.

36절. 그 왕은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들 위에 자신을 더 높일 것이며, 신들의 신을 거슬러 기이한 말들을 할 것이며, 진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형통할 것이다; 이는 작정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개된 왕은 직전에 언급된 동일한 권세, 즉 교황권을 가리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권세에 적용하면 제시된 조건들이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Uriah Smith, Daniel and Revelation, 292.

스미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사적 해석"을 끼워 넣었다. "여기서 소개된 왕은 마지막으로 주목된 동일한 권세, 즉 교황권을 의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조건들을 그 권세에 적용하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본문의 분명한 문법적 구조를 인간의 명제로 부정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잘못이다. 그 절에는 "and the k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지목되는 왕이 앞선 구절에 제시된 왕과 동일함을 요구한다. 새로운 왕에 대한 증거는 없으며, 스미스는 "마지막으로 언급된

동일한 권세"가 "교황권"이었다고 확인한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31절부터 35절까지가 교황권을 가리킨다고 인정하며, 36절에서 새로운 왕을 식별해 주는 문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단지 35절 이후의 구절들이 교황권의 예언적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는 프랑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끼워 넣는다.

스미스가 40절을 다룰 때, 자신의 사적 해석으로 세운 잘못된 예언적 기반 때문에 그는 삼자 간 전쟁을 상정하게 된다. 그의 억측에 따르면 남방의 왕은 이집트로 규정되고, 그 절에서 이집트가 프랑스를 상대로 '밀어붙이며', 터키는 프랑스를 대적해 오는 북방의 왕으로 지목된다. 그렇게 덧붙여진 인간적 해석은 스미스가 문자적 아마겟돈을 상정하는 예언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곳에서 터키는 예루살렘으로 진군하고, 미가엘이 일어설 때 인류의 은혜 기간의 종결을 표시한다. 이러한 적용의 오류를 정확히 지적한 책들이 재림주의 역사 속에서 많이 저술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유라이어 스미스의 사적 해석의 열매를 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사적 해석을 주창하기 시작했을 때 촉발된 논쟁을 규명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제임스 화이트가 그의 그릇된 견해에 반대하자, 재림주의 내에서 로마에 대한 올바른 규정이 잘못된 적용에 의해 공격받는 또 하나의 논쟁의 축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다니엘서의 "the daily"를 둘러싼 장기간에 걸친 논쟁도 있었는데,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가 다니엘서의 "the daily"를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으로 동일시하는 배도한 개신교의 견해를 채택하여, "the daily"가 이교 로마의 상징이라는 확립된 기초적 진리와 모순되었다.

"그때 나는 'daily'(다니엘 8:12)와 관련하여 'sacrifice'라는 단어는 사람의 지혜로 덧붙여진 것이며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주께서 심판의 때의 외침을 전한 이들에게 그것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주셨다는 것을 보았다. 1844년 이전, 연합이 존재하던 때에는 거의 모두가 'daily'에 대한 올바른 견해로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1844년 이후의 혼란 속에서 다른 견해들이 받아들여졌고, 어둠과 혼란이 뒤따랐다. 1844년 이후로는 시간이 시험이 되지 않았고, 다시는 시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초기 저술, 74.

끝의 때인 1989년에,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의 봉인이 풀렸을 때, 북방 왕은 그때 교황권 로마로 인식되었는데, 이는 앞서 제임스 화이트가 유라이어 스미스와 의 논쟁에서 규정했던 그대로였다. 화이트는 스미스의 오류를 다루면서 '줄 위에 줄'이라는 방법론을 적용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다니엘 2장에 나타난 마지막 권세와, 다니엘 7장에 나타난 마지막 권세와, 다니엘 8장에 나타난 마지막 권세가 모두 로마라면, 세 가지 증거에 비추어 다니엘 11장에서 끝을 맞는 권세도 로마이며, 스미스가 주장한 터키가 아니라고.

1989년에 시작된 셋째 천사의 예언적 운동은 2001년 9월 11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요엘서 1장을 둘러싼 논쟁에 직면했다. 처음 다섯 절 안에서, 먼저 세대, 다음으로 곤충들이라는 두 증인은 로마에 의해 재림교회에 초래된 점진적 파괴를 드러낸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예언 속의 "술 취한 자들"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조롱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네 번째이자 마지막 세대에 깨어난다. 그 점진적 파괴는 마지막 때의 예루살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적 파괴이며, 1863년의 반역 이후로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점차 로마의 교리를 받아들여 왔다.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으라,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그들의 자녀에게, 그들의 자녀는 또 다른 세대에게 말하게 하라.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한 자들아, 깨어서 올라,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자들아,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다 울부짖으라, 이는 그것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라. 요엘 1:1-5.

뉴욕시의 거대한 빌딩들이 무너진 후, 그때 늦은 비가 "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밀러주의자들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던 하박국 2장의 논쟁이 다시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도 이해되었다. 그 논쟁은 올바른 예언 해석 방법론을 둘러싼 것이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나를 세우고,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와 내가 책망을 받을 때에 어떻게 대답할지를 보려고 살피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환상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환상은 아직 정한 때를 위함이니, 끝에 이르면 말할 것이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반드시 오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이 높아져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으로, 그는 포도주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자요 교만하여 집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의 욕심을 스올처럼 넓히며, 죽음 같아서 만족함을 알지 못하고, 모든 민족을 자기에게 모으며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 쌓아 모으는도다. 하박국 2:1-5.

하박국 2장의 시험은 2001년 9월 11일에 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가 내려왔을 때 시작된 14만 4천의 운동에 대한 시험을 예표하였다. 그때 1843년 개척자 도표에 나타난 재림주의 기초 위에 선 자들과, 하박국에서 "포도주로" 범죄하고 요엘서의 "술 취한 자들"로서 "깨어났으나" 결국 그들의 "입"에서 "새 포도주"가 끊어진 자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었다.

1절의 히브리어 'reproved'는 'argued with'를 의미한다. 밀러파 파수꾼들에게 주어진 그 논지는, 이 구절들의 성취로 1842년 5월에 제작된 1843년 선구자 도표에 나타났다. 자기 믿음으로 살던 한 부류는 그 시대를 위한 예언적 현재 진리 메시지를 두고, 포도주로 범죄한 다른 한 부류와 논쟁 중에 있었다. 그들은 요엘의 술 취한 자들로서, 잠에서 깨어 보니 교리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봉해진 책을 깨닫지 못하는, 이사가야 말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다.

화 있을진저, 교만의 면류관이며,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아름다움은 시드는 꽃 같고, 포도주에 제압된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들의 머리에 있도다. 보라, 주께서 강하고 능한 자 하나를 두셨으니, 우박의 폭풍과 멸하는 폭풍 같고, 넘쳐 흐르는 힘센 물의 범람 같아서, 손으로 땅에 내던지리라. 교만의 면류관, 곧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은 발 아래 짓밟히리라. ... 스스로 멈추고 놀라라; 소리치고 또 소리치라. 그들은 취하였으나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비틀거리나 독주로 인함이 아니로다. ...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조롱하는 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 위에 부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라. 곧 예언자들과 너희 통치자들, 선견자들을 덮으셨도다. 모든 이상이 너희에게는 봉함된 책의 말과 같게 되었나니, 사람들이 배운 자에게 그것을 주며 이르되,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읽을 수 없나니 그것이 봉함되었음이라 하고, 또 그 책을 배우지 못한 자에게 주며 이르되,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나는 배우지 못하였노라 하느니라. 이사야 28:1-3, 14; 29:9-12.

하박국이 말하는,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과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사이의 논쟁은, 이사야의 증언에서는 올바른 방법론과 잘못된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이는 이사야가 "line upon line"이라는 방법론이 그 술취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사망의 언약에 들어가게 만든다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또한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릇되며, 독주로 말미암아 길에서 벗어났도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그릇되었고, 포도주에 삼켜졌으며, 독주로 말미암아 길에서 벗어났도다. 그들이 환상에서 그릇되며, 판단함에 비틀거리는도다. 모든 상이 토한 것과 더러움으로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없기 때문이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교훈을 깨닫게 하겠느냐? 젖을 막 댄 자들, 가슴에서 막 떼어낸 자들에게로다. 이는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규례에 규례를 더하고, 규례에 규례를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어야 함이라.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가 곤한 자를 쉬게 할 안식이요, 이것이 새롭게 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규례에 규례를 더하고, 규례에 규례를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 되어,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서지며 울무에 걸려 붙들리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조롱하는 자들아,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스올과 계약하였으니,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라.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함이라. 이사야 28:7-15.

그런 다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술 취한 자들에게 심판을 가져오게 하시려고 하박국의 논쟁 가운데 무엇을 두셨는지를 밝힌다. 그것은 곧 초석, 즉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였고, 이는 가브리엘과 천사들이 윌리엄 밀러가 이해하도록 인도한 최초의 기간 예언이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시온에 기초로 한 돌을 두노니, 시험한 돌이요, 귀한 모퉁잇돌이요, 견고한 기초라. 그를 믿는 자는 급히 서두르지 아니하리라. 또 나는 공평을 측량줄로 삼고, 의를 추로 삼으리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쓸어버리고, 물이 은신처를 넘쳐 흐르리라. 너희가 사망과 맺은 언약은 폐하여지고, 스올과 맺은 계약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 너희는 그것에게 짓밟히리라. 이사야 28:16-18.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옛 길로 돌아가게 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01년 9월 11일을 기점으로 그 운동에 참여해 오던 한 무리가 요엘의 네 가지 곤충이 셋째 화의 이슬람을 대표한다고 단정했다. 그 마지막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줄 위에 줄"이라는 방법론이 열려졌을 때, 핵심적인 예언의 규칙 하나가 확인되었다. 그 규칙은 예언의 삼중 적용인데,

요엘의 네 세대가 셋째 화의 이슬람을 대표한다고 단정했던 그 무리는, 자신의 그릇된 적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예언의 삼중 적용 규칙을 잘못 적용했다.

그런 다음 2014년 무렵,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5절에 제시된 역사에 대한 거짓 해석에 근거해 공격을 가한 영국과 호주발 동성애 "woke" 의제와 함께 사탄이 이 운동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되었다. 이 운동에 침투해 공격한 친동성애 지도자들은 결국 재림주의가 적그리스도인 로마의 교황을 향해 거짓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로마의 교황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공격의 목적은 이 운동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주로 "네 백성을 약탈하는 자들"이 지목되어 있는 바로 그 본문(다니엘서 11:1-15)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데 있었다.

이 모든 논쟁은 교황 로마의 상징을 혼동시키려는 사탄의 시도였다. 지금까지 살아온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말대로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오늘날 논쟁은 다시금 "네 백성의 강도들"로 상징된 로마의 정체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새롭고 사사로운 해석은 "네 백성의 강도들"이 미국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서도 이것이 밀려파와 개신교도들 사이의 최초 논쟁과 똑같은 논쟁이라는 사실과, 16세기 작가 존 헤이우드에게 귀속되는 오래된 격언, 곧 "보려 하지 않는 자만큼 눈먼 이는 없다"는 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의 문구의 또 다른 변형은 "들으려 하지 않는 자만큼 귀 먹은 이는 없다"이다. 대부분은 이 표현이 헤이우드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헤이우드의 이 표현이 예레미야, 이사야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과 신약에서 예수께서 인용하신 구절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제 이 말을 들으라,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아.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예레미야 5:21.

'지식의 증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는 다니엘서의 '악인'과 마태복음의 '어리석은 처녀들'이다. 1989년의 지식의 증가는 주로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이 교황권, 곧 내가 '현대 로마'라고 부른 세력의 최후의 흥망을 지목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그 절들은 미국도 지목하지만, 미국은 교황권과의 관계 속에서만 언급된다. '악인'과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과 대조되며, 마지막 때의 지혜로운 자들은 1989년의 지식의 증가를 이해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다.

또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그때 내가 말하였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가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둔하게 하며, 눈을 감기게 하라. 혹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이사야 6:8-10.

이사야 6장에서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2001년 9월 11일에 임한 '현재 진리' 메시지 안에 있다고 자처하는 이들인데, 이는 이사야 6장이 그 장면이 '땅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할 때에 벌어진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길로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강림했고, 그때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아졌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심을 보았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돌로는 얼굴을 가리고, 돌로는 발을 가리고, 돌로는 날았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하였다. 부르짖는 자의 소리에 문설주가 흔들렸고, 그 집은 연기로 가득하였다. 이사야 6:1-4.

화이트 자매는 그 천사의 선포를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가득 채우는 때를 표시하는 사건과 연결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시켜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 할 때, 먼저 그 선지자가 환상 중에 성소 안의 지성소를 들여다보도록 허락하셨다. 갑자기 성전의 문과 안쪽 휘장이 들려 올라가거나 걷힌 듯했고, 선지자의 발조차 들일 수 없는 그 지성소 안을 바라보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의 앞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와 환상이 나타났고, 그의 영광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보좌 주위에는 위대한 왕을 호위하는 경비처럼 스랍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영광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들의 찬양이 깊은 경배의 음조로 울려 퍼지자, 문기둥들이 마치 지진에 흔들리는 듯 떨어졌다.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입술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찬양을 쏟아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1-8 참조.]

"보좌를 둘러선 스랍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경외심으로 충만하여, 한순간도 자신들에게 감탄의 눈길을 돌리지 않는다. 그들의 찬양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승리의 노래가 아름다운 성가로 서로 주고받으며 울려 퍼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복음의 일꾼들, 21.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인치는 때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사야는, 눈이 있으나 보기를 선택하지 않고 귀가 있으나 듣기를 선택하지 않는 백성에게 전할 메시지를 받았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시작을 통해 14만 4천 명의 인치는 때의 끝을 보여 주신다. 마지막에도 다시금 이사야로 대표되는 한 사자가 나타나, 보지도 듣지도 않기를 선택하는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그 메시지는 14만 4천 명의 최종 정결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예언적 증언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이다. 그 예언적 증언은 '네 백성의 약탈자들'로 상징된 권세에 의해 세워지는 '환상'이다.

다음 글에서 우리는 이러한 논쟁들 각각을 줄 위에 줄의 방식으로 서로 겹쳐 살펴볼 것이다. 밀러파의 선, 스미스와 화이트의 선, '매일'의 선, 1989년의 '북방왕' 선, 요엘의 별레 선, 그리고 현재의 논쟁. 이 여섯 가지 오래된 논쟁들은, 줄 위에 줄로 볼 때, 1843년 개척자 도표에 제시된 첫 번째 논쟁의 진리를 분명히 지지한다. 그 진리는 로마가 '네 백성을 강탈하는 자'로서 스스로를 높이고 몰락하며 목시를 확증한다는 것이다.

"나는 1843년 도표가 주님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고, 그것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았다; 그 숫자들은 그분이 원하신 그대로였다는 것; 그분의 손이 그 위를 덮어 몇몇 숫자들에 있는 한 가지 실수를 숨기셔서, 그분의 손이 거두어질 때까지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다는 것." 초기 저술, 74.

그 도표에 담긴 진리들을 거부하는 것은 동시에 예언의 영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며, 그 도표는 '그 목시'를 확립하는 이가 미국이 아니라 로마임을 밝힌다. 그 '목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한다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로 그 목시다.

사탄은 ... 끊임없이 거짓된 것을 들이밀어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 한다. 사탄의 맨 마지막 속임수는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잠언 29:18).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교묘하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참된 증언에 두고 있는 신뢰를 흔들려 놓을 것이다.

"증언들을 향한 사탄적인 증오가 불붙을 것이다. 사탄의 활동은 교회들이 그 증언들에 대한 믿음을 흔들려 놓는 데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영의 경고와 책망과 권면에 귀 기울인다면, 사탄은 자신의 기만을 퍼뜨리고 영혼들을 그의 미혹으로 묶어 두기 위한 것처럼 분명한 길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택된 메시지, 제1권, 48.

겉모습을 넘어 속을 보시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이가, 큰 빛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그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태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놀라지 않는다.' 참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길을 택하였고,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기뻐한다. '나 또한 그들의 미혹을 택하여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이는 내가 불려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고, '불의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이사야 66:3, 4; 데살로니가후서 2:11, 10, 12.

"하늘의 스승이 물었다. '실상 너희는 세속적 방침에 따라 많은 일을 처리하며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올바른 기초 위에 건축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받아들이신다고 가장하는 것보다 마음을 더 미혹시키는 강한 기만이 무엇이 있겠느냐? 오, 그것은 큰 속임수요, 마음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미혹이다. 일찍이 진리를 알았던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그 영과 권능으로 착각하고, 자신들이 부요하여 재물이 늘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필요한 처지에 있을 때, 그 미혹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증언들, 제8권, 249, 250쪽."